

## “작년 사회적가치 18.4조 창출” SK, 전년 대비 7조 가량 증가

SK그룹이 23일 2021년 사회적가치(SV) 창출 성과를 발표하고, 사회적가치 측정 산식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사회적가치란 기업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들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회성과의 총합을 의미한다.

SK는 그동안 기업의 새로운 역할로 경제적가치(EV)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해 왔고, 2018부터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화폐화해 발표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적가치 측정 산식과 데이터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최대원 SK화학의 지분인 더블보텀라인(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 경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는 이날 전 관계사가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가치 총액이 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조원(+60%) 가량 증가한 수치다.

SK는 그동안 내부 관리만 해왔던 사회적가치 측정 세부 산식과 관련 데이터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회적가치 화폐화 값은 ▲베이스라인(시장평균 기준) ▲화폐화 단위기준(국제기구·정부·협회 등 발표지표 적용) ▲기여도 등 세 가지 주요 항목을 적용해 도출한다. 예를 들어,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 가동 중에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주거단지 냉·난방 에너지로 공급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거뒀고, 이로써 지난해 28억 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감축비용, 공급열량 등을 대입해 산출됐다.

산식 공개와 관련해 이형희 SV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가치 도출 산식과 성과가 가지는 의미를 공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측정 시스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두산, 세계가스총회서 수소연료전지 기술 소개

두산이 23~2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2 세계가스총회’에 참가해 국내 수소경제 선도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선보인다. 세계가스총회는 세계 3대 가스산업 국제 행사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참가해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 등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두산은 전시회에서 두산퓨얼셀, ㈜두산 퓨얼셀파워BU,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DMI)을 앞세워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한다.

두산퓨얼셀은 수소,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트라이젠(Tri-gen)을 전시한다. 이 제품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실증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 실증을 거쳐 2022년 내 본격 상용화할 계획이다. (주)두산 퓨얼셀파워BU는 건물·주택용 수소연료전지를, DMI는 내장형과 내구성이 높은 DS30W 제품과 함께 안티드론과 가스배관 솔루션을 공개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롯데케미칼의 새로운 기업 비전 ‘Every Step for Green’ 전시를 찾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일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자체개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한 보트인 ‘가능성(Possibility)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자주



한화그룹이 향후 5년간 미래 산업 분야인 에너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 국내외 산업에 3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5년간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제공 | 한화그룹

# 롯데·한화 너도나도 “5년간 37조 공격 투자”

## 롯데, 국내 산업·지역경제 활력 도모

수소·전지소재에 1.6조원 이상 투입  
유통사업에 8.1조 쏟아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육성 위한 투자 규모 확대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총 3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그룹의 중장기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빅픽처다.

신성장 테마인 헬스 앤 웰니스,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부문을 포함해 화학·식품·인프라 등 핵심 산업군에 5년간 총 37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코로나 19로 위축됐던 유통·관광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롯데케미칼은 5년간 수소 사업과 전지소재 사업에 1조6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수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국내외 전략적 파트너와 연내 합작사를 설립하며, 수소 충전소 사업과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배터리 전해액, 차세대 ESS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도 밝혔다. 2030년까지 총 6조 원을 투자해 120만 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 활용하여 연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배터리소재 분야에는 2030년까지 총 4조 원을 투자해 연간 매출액 5조 원 달성한다는 목표다. 리사이클과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친환경 리사이클 제품 10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화학 사업군은 7조8000억 원을 투자해 고

부가 스페셜티 사업과 범용 석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 및 생산 증설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헬스 앤 웰니스 부문에서는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사업 진출 준비와 해외 공장 인수에 이어 1조 원 규모의 국내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부문은 올해 실증 비행이 목표인 UAM(도심항공교통)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한다. UAM 사업은 그룹이 보유한 오프라인 거점을 기반으로 지상과 항공을 연계한 국내 교통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탠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본격화한다. 시설 투자를 통해 연간 충전기 생산량을 1만대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렌탈도 8조 원 규모의 전기차 24만대를 도입해 전기차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유통 사업군은 8조1000억 원을 투자해 상권 발전과 고용 창출에 앞장선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마포구 삼양동, 인천 송도 등에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대규모 복합몰 개발을 추진한다.

롯데마트는 1조 원을 투자해 제타플렉스, 맥스, 보틀병커 등 새로운 쇼핑 문화를 선도하는 특화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호텔 사업군은 관광 인프라 핵심 시설인 호텔과 면세점 시설에 2조3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식품 사업군은 대체육, 건강 기능식품 등 미래 먹거리와 신제품 개발 등에 총 2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내 스타트업 지원과 투자에도 공을 들인다. 롯데벤처스는 2026년까지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36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한화, 국내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

방산·탄소중립 등 3개 사업에 20조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에 4조 투자  
“글로벌 우주산업 혁신 허브로 도약”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향후 5년간 에너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 국내외 미래 산업 분야에 국내 20조 원을 포함해 총 37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37조6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국내에서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화는 투자 배경에 대해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들의 경쟁 우위는 더욱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한 미래 기술 내재화 등에 대한 투자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투자하는 20조 원은 에너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의 3개 사업 분야에 집중한다.

한화그룹은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분야에 약 4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최신 생산시설을 구축해 한국을 고효율의 태양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 기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에너지 개발 사업영역 확대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 환경에서 친환경 에너지 공급 기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각오다.

9000억 원은 수소혁신 기술 상용화,

수전해 양산 설비 투자 등 탄소중립 사업 분야에 투자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친환경 소재 제품 개발 등에는 2조1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중립 달성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친환경 고부가제품 연구 개발, 크레졸 등 친환경 헬스케어 제품 사업 등을 통해 환경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방산·우주항공 분야에는 2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한화그룹은 K-9 자주포 해외 시장 개척, 레드백 잠잠차 신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K-방산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국형 위성체 및 위성발사체, UAM 등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관련 시장을 개척에도 앞장선다. 국내 우주사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우주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도 석유화학 부문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등에 4조 원, 건설 분야 복합개발 사업 확대 및 프리미엄 레저 사업 강화 등에도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20조 원의 금액은 지난 5년간 한화그룹이 국내외를 통틀어 투자한 22조60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 투자와 병행해 고용 확대에도 앞장선다. 향후 5년간 총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기계·항공·방산, 화학·에너지, 건설·서비스, 금융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연평균 4000여 명 안팎의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25일(수) 음력: 4월 2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                                                                                                                                   |                                                                                                                                  |                                                                                                                                     |                                                                                                                                  |                                                                                                                                       |                                                                                                                                |                                                                                               |                  |                                                                                                |                  |                                                                                                 |                  |
|-----------------------------------------------------------------------------------------------------------------------------------|----------------------------------------------------------------------------------------------------------------------------------|-------------------------------------------------------------------------------------------------------------------------------------|----------------------------------------------------------------------------------------------------------------------------------|---------------------------------------------------------------------------------------------------------------------------------------|--------------------------------------------------------------------------------------------------------------------------------|-----------------------------------------------------------------------------------------------|------------------|------------------------------------------------------------------------------------------------|------------------|-------------------------------------------------------------------------------------------------|------------------|
|  <b>쥐</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b>소</b>                                        | 행운색: 적색<br>길방: 남                                                                                                                 |  <b>호랑이</b>                                        | 행운색: 검정<br>길방: 북                                                                                                               |  <b>토끼</b> | 행운색: 적색<br>길방: 남 |  <b>용</b> | 행운색: 적색<br>길방: 남 |  <b>뱀</b>  | 행운색: 청색<br>길방: 동 |
|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몇몇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 갑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황재수가 있다. |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계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                                                                                               |                  |                                                                                                |                  |                                                                                                 |                  |
|  <b>말</b>                                      | 행운색: 청<br>길방: 동                                                                                                                  |  <b>양</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b>원숭이</b>                                        | 행운색: 검정<br>길방: 북                                                                                                               |  <b>닭</b>  | 행운색: 검정<br>길방: 북 |  <b>개</b> | 행운색: 적색<br>길방: 남 |  <b>돼지</b> | 행운색: 흰색<br>길방: 서 |
| 웅담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정신적으로는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바빠지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날이다. 지살 일에는 움직임이 있다.     |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될 것이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서두르면 낭패 본다. 침착하라.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도전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지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학업,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는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았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 볼 수 있다. 갑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자칫 망언이나 희롱이 될 수 있다. |                                                                                               |                  |                                                                                                |                  |                                                                                                 |                  |

| 오늘의 날씨 |      |          | 25일(수) |                  |              |
|--------|------|----------|--------|------------------|--------------|
| 서울     | 0/70 | 17<br>28 | 인천     | 0/70             | 16<br>23     |
| 강릉     | 0/20 | 20<br>30 | 대전     | 0/20             | 15<br>31     |
| 광주     | 0/10 | 18<br>31 | 대구     | 0/10             | 18<br>32     |
| 창원     | 0/0  | 17<br>28 | 제주     | 0/0              | 18<br>26     |
|        |      |          | 지역     | 강수 확률<br>(오전/오후) | 최저<br>최고기온 C |
|        |      |          | 날씨     |                  |              |

|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                   | 제3832호          |              |
|-------------------------------------------------------|-------------------|-----------------|--------------|
|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 편집국장 연재호          | 사업총괄 김성수        | 광고국장 이송욱     |
| 편집부장 안도영                                              | 스포츠부장 양형호         | 정재우             |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
|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 사진부장 고충철          | 인쇄              | 동아일보사        |
| 광고문의 02-361-1612                                      | 구독신청 1588-2020    | FAX 02-361-1617 |              |
|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                   |                 |              |
|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                   |                 |              |
| 대표전화 02-361-1610                                      | 제본·투고 02-361-1616 | sol@donga.com   |              |